

9. 사회·복지

9-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9-2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9-3 노후에 요양이 필요할 때 원하는 장소

9-4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주된 것)

9-5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

9-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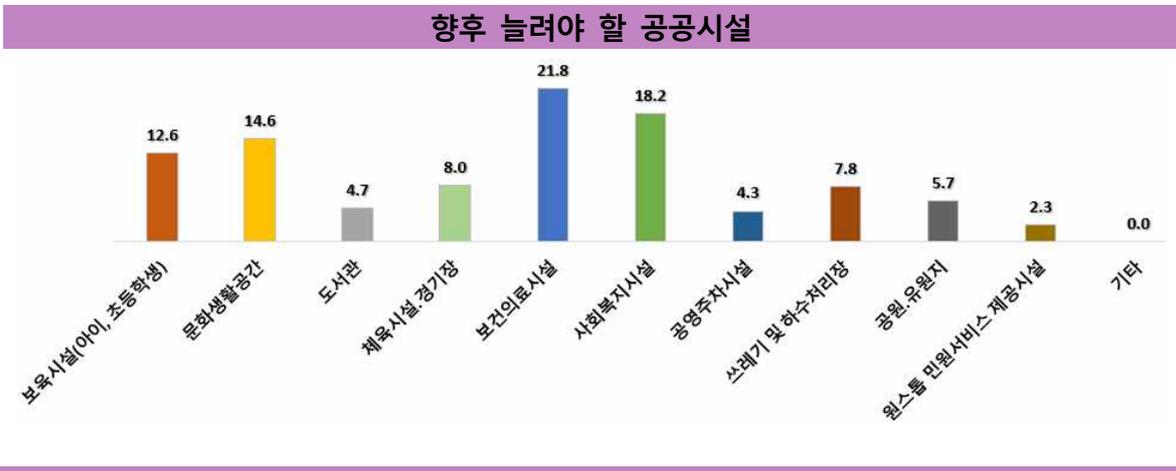
9-7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9-8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 이상, 주된응답)

9-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 21.8%

- 향후 늘리거나 신설해야 할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등)」 21.8%, 「사회복지시설」 18.2%, 「문화생활공간」 14.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사회복지시설」(18.3%)의 응답이 가장 높고, 북부권(17.7%)과 서남부권(29.6%)은 「보건의료시설」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 연령은 「보육 및 돌봄시설」 응답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40대(20.8%)와 50대(20.7%)는 「문화생활공간», 15~29세(20.8%)와 60세 이상(26.5%)은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별/이혼 응답자는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특히 취약계층에서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9-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단위: %)

구분	보육시설(아이, 초등학교)	문화생활공간	도서관	체육시설, 경기장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시설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공원, 유원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시설	기타
2017년	18.4	26.1	7.1	15.9	55.3	41.7	4.2	7.6	14.3	-	0.1
2019년	12.6	14.6	4.7	8.0	21.8	18.2	4.3	7.8	5.7	2.3	0.0
< 지역별 >											
중부권	15.4	18.1	3.0	4.4	16.5	18.3	6.0	9.1	6.9	2.2	0.1
북부권	12.8	16.8	7.2	14.2	17.7	16.1	1.2	5.2	7.6	1.1	
서남부권	9.8	9.8	4.7	7.6	29.6	19.4	4.4	8.0	3.4	3.1	
< 성별 >											
남자	13.2	14.9	3.4	10.4	19.3	16.4	5.1	7.8	6.4	3.1	
여자	12.1	14.3	6.2	5.1	24.7	20.3	3.3	7.7	5.0	1.3	0.1
< 연령별 >											
15~29세	10.1	13.6	15.1	16.8	20.8	8.9	3.9	3.1	5.3	2.5	
30~39세	25.8	20.6	4.2	9.5	9.1	13.0	7.0	4.6	3.6	2.5	
40~49세	15.9	20.8	5.6	11.1	17.0	10.0	3.5	11.0	3.7	1.4	
50~59세	12.0	20.7	4.3	8.8	19.3	13.0	4.8	7.3	7.3	2.3	0.2
60세 이상	10.4	9.7	2.0	4.2	26.5	25.9	3.9	9.0	6.1	2.4	
65세 이상	10.3	8.8	2.0	3.7	26.9	27.4	3.8	8.8	5.9	2.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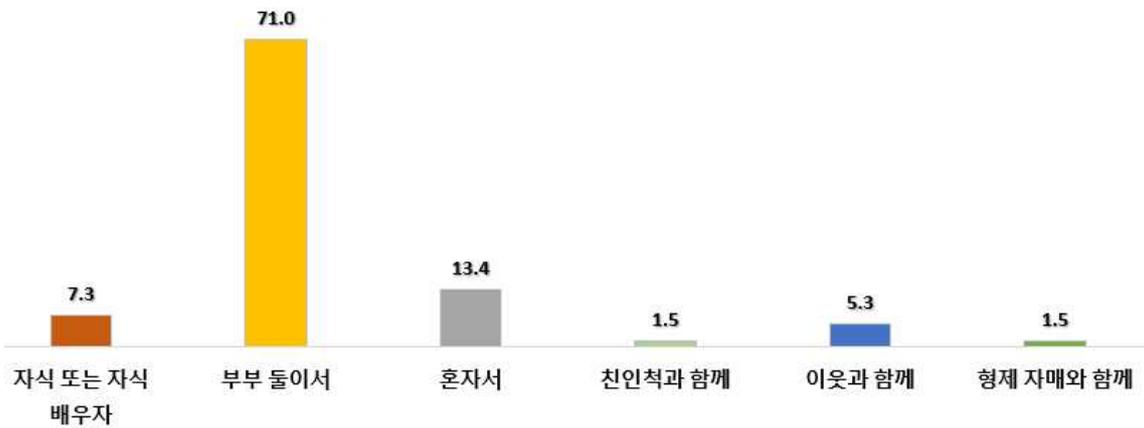
9-2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선호하는 노후의 생활 형태는 「부부 둘이서」 71.0%

• 선호하는 노후의 생활 형태는 「부부 둘이서」 71.0%, 「혼자서」 13.4%,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 7.3%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지역에서 「부부 둘이서」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중부권 75.2%, 서남부권 69.5%, 북부권 67.0% 순으로 나타났고, 「혼자서」응답은 중부권 15.3%, 북부권 12.3%, 서남부권 12.2% 조사됨.
-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 대비 「부부 둘이서」응답이 적고 「혼자서」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부 둘이서」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혼자서」응답 비율은 감소함.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표 9-2]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단위: %)

구분	계	자식 또는 자식 배우자	부부 둘이서	혼자서	친인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2017년	100.0		8.9		87.4		3.7
2019년	100.0	7.3	71.0	13.4	1.5	5.3	1.5
< 지역별 >							
중부권	100.0	3.9	75.2	15.3	0.3	3.9	1.4
북부권	100.0	10.2	67.0	12.3	2.2	5.0	3.3
서남부권	100.0	8.8	69.5	12.2	2.1	6.9	0.5
< 성별 >							
남자	100.0	4.2	76.3	11.0	1.3	5.9	1.3
여자	100.0	10.8	65.0	16.1	1.6	4.7	1.8
< 연령별 >							
15~29세	100.0	12.4	69.7	12.7	2.0	2.0	1.1
30~39세	100.0	8.3	76.9	7.1	1.1	3.5	3.1
40~49세	100.0	5.1	70.7	10.4	1.6	10.1	2.0
50~59세	100.0	3.9	78.4	8.0	2.1	5.0	2.7
60세 이상	100.0	7.7	67.4	17.6	1.1	5.4	0.8
65세 이상	100.0	9.0	64.2	20.0	1.0	5.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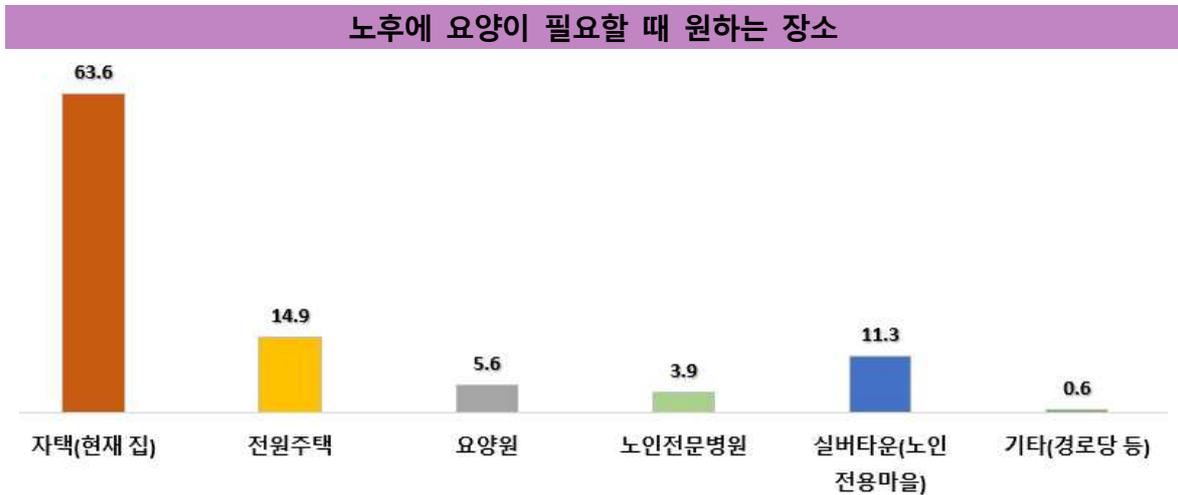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9-3 노후에 요양이 필요할 때 원하는 장소

노후에 요양이 필요할 때 「자택」(63.6%)을 선호

- 노후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현재 집)」 63.6%, 「전원주택」 14.9%, 「실버타운(노인 전용마을)」 11.3%, 「요양원」 5.6%, 「노인 전문병원」 3.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자택(현재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고학력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원주택」과 「실버타운(노인 전용마을)」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며, 「자택(현재 집)」응답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표 9-3] 노후에 요양이 필요할 때 원하는 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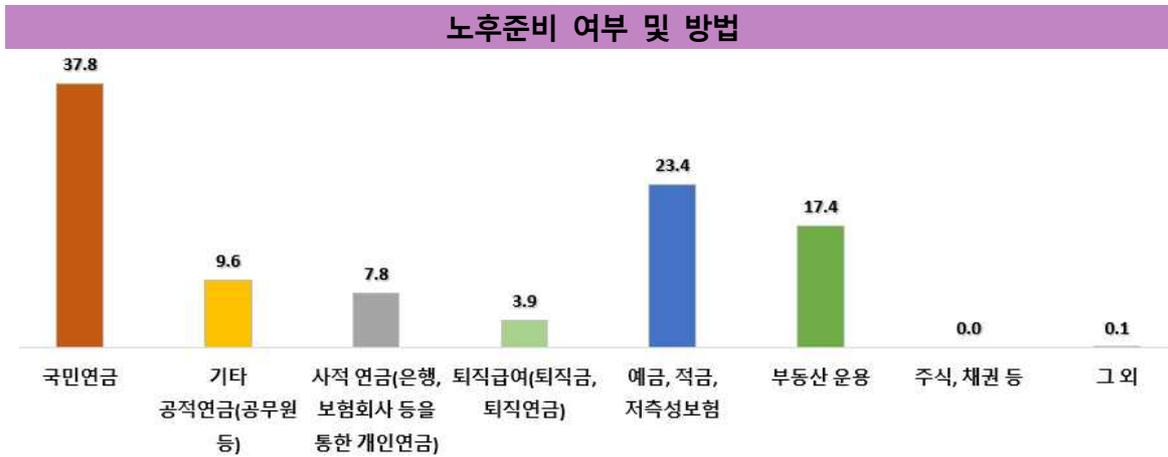
구분	계	자택(현재 집)	전원주택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실버타운(노인 전용마을)	기타(경로당 등)
2017년	100.0	61.6	23.9	3.6	4.5	6.3	0.1
2019년	100.0	63.6	14.9	5.6	3.9	11.3	0.6
< 지역별 >							
중부권	100.0	65.3	13.1	6.2	2.5	11.7	1.2
북부권	100.0	56.6	17.8	6.8	3.2	15.4	0.2
서남부권	100.0	66.4	14.9	4.2	5.9	8.4	0.3
< 성별 >							
남자	100.0	60.8	19.7	4.0	3.9	11.0	0.6
여자	100.0	66.8	9.6	7.4	3.9	11.7	0.6
< 연령별 >							
15~29세	100.0	49.1	26.1	3.1	2.6	19.1	
30~39세	100.0	60.4	25.1			11.9	2.6
40~49세	100.0	47.5	26.4	3.6	4.2	18.3	
50~59세	100.0	60.8	15.4	4.2	3.9	15.4	0.4
60세 이상	100.0	73.2	7.2	8.3	4.9	5.8	0.7
65세 이상	100.0	74.1	5.9	9.0	4.7	5.5	0.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9-4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주된 것)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59.0%, 방법은 「국민연금」 37.8%

- 노후의 생활 자급에 대해서 「준비하고(되어) 있다」 59.0% 응답하였으며, 주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37.8%,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23.4% 순으로 나타남.
 - 「노후 준비하고(되어)있다」 응답률은 연령별로 「50대」 72.5%, 「60세 이상」 63.8%, 「40대」 57.0%, 「30대」 49.5%, 「15~29세」 27.7% 순으로 나타남
 - 고학력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준비하고(되어) 있다」 응답이 증가함.
 - 지역별로 서남부권은 63.5%, 중부권은 60.1%, 북부권 50.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국민연금보다 기타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9-4]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주된 것)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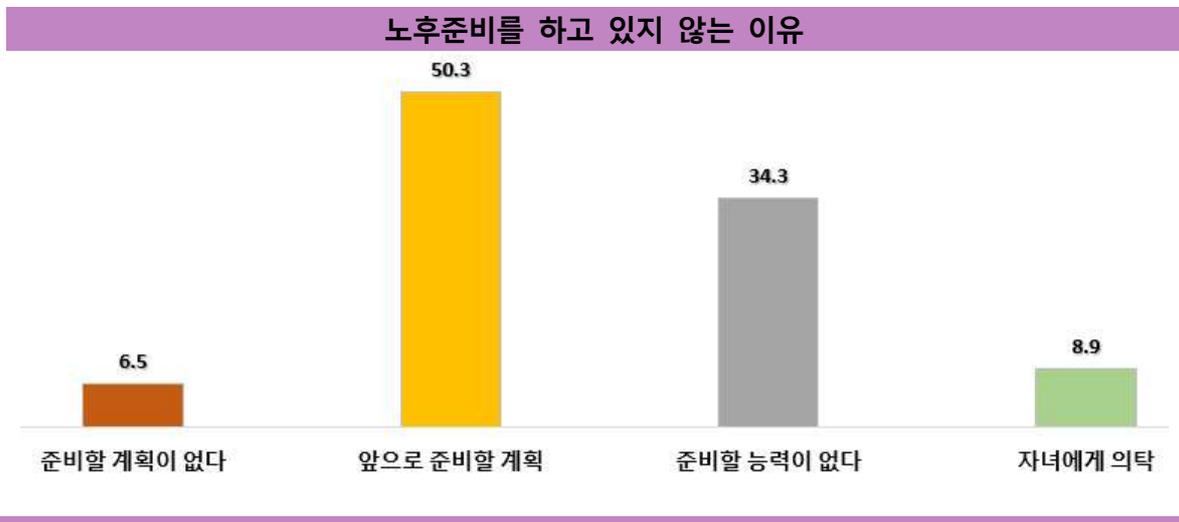
구 분	계	준비되어 있다	준비 방법									준비되어 있지 않다
			소계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공무원 등)	사적연금(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그 외	
2019년	100.0	59.0	100.0	37.8	9.6	7.8	3.9	23.4	17.4	0.0	0.1	41.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60.1	100.0	49.0	6.2	3.7	1.8	23.0	16.4			39.9
북 부 권	100.0	50.2	100.0	28.4	8.3	7.1	7.3	35.5	13.4			49.8
서 남 부 권	100.0	63.5	100.0	32.3	13.3	12.0	4.1	17.7	20.3		0.2	36.5
< 성 별 >												
남 자	100.0	61.1	100.0	37.2	11.7	9.0	4.5	22.0	15.4		0.2	38.9
여 자	100.0	56.6	100.0	38.6	6.9	6.4	3.1	25.1	19.9			43.4
< 연령 별 >												
15 ~ 29 세	100.0	27.7	100.0	25.8	55.7	9.2		9.3				72.3
30 ~ 39 세	100.0	49.5	100.0	23.5	28.0	9.5	9.3	13.1	16.7			50.5
40 ~ 49 세	100.0	57.0	100.0	35.5	16.0	13.6	8.2	24.8	2.1			43.0
50 ~ 59 세	100.0	72.5	100.0	41.8	7.9	8.0	6.1	22.6	13.5			27.5
60 세 이상	100.0	63.8	100.0	39.8	1.2	6.1	1.6	26.4	24.8		0.2	36.2
65 세 이상	100.0	58.7	100.0	41.0	1.3	5.4	1.0	25.6	25.5		0.2	41.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9-5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

- 노후의 생활 자금을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할 계획」(50.3%)인 것으로 나타남.
 -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34.3% 응답하였으며, 「자녀에게 의탁한다」 8.9%, 「준비할 계획이 없다」 6.5% 인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응답이 68.0%로 여자(32.2%)보다 높은 응답을 보이고, 여자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응답이 48.3%로 가장 높고, 남자(20.6%)보다 준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15~59세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60세 이상 및 중졸이하, 사별/이혼,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9-5]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

(단위: %)

구 분	계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다	소계	준비할 계획이 없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할 능력이 없다	자녀에게 의탁	
2019년	100.0	59.0	41.0	100.0	6.5	50.3	34.3	8.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60.1	39.9	100.0	5.9	50.9	33.7	9.5
북 부 권	100.0	50.2	49.8	100.0	8.3	54.6	32.2	4.9
서 남 부 권	100.0	63.5	36.5	100.0	5.6	46.0	36.8	11.6
< 성 별 >								
남 자	100.0	61.1	38.9	100.0	6.2	68.0	20.6	5.2
여 자	100.0	56.6	43.4	100.0	6.8	32.2	48.3	12.7
< 연령 별 >								
15 ~ 29 세	100.0	27.7	72.3	100.0	4.9	74.0	21.1	
30 ~ 39 세	100.0	49.5	50.5	100.0	9.0	84.9	6.1	
40 ~ 49 세	100.0	57.0	43.0	100.0	4.3	84.0	11.7	
50 ~ 59 세	100.0	72.5	27.5	100.0	3.6	73.6	22.8	
60 세 이상	100.0	63.8	36.2	100.0	8.3	12.1	58.5	21.1
65 세 이상	100.0	58.7	41.3	100.0	7.2	7.9	61.1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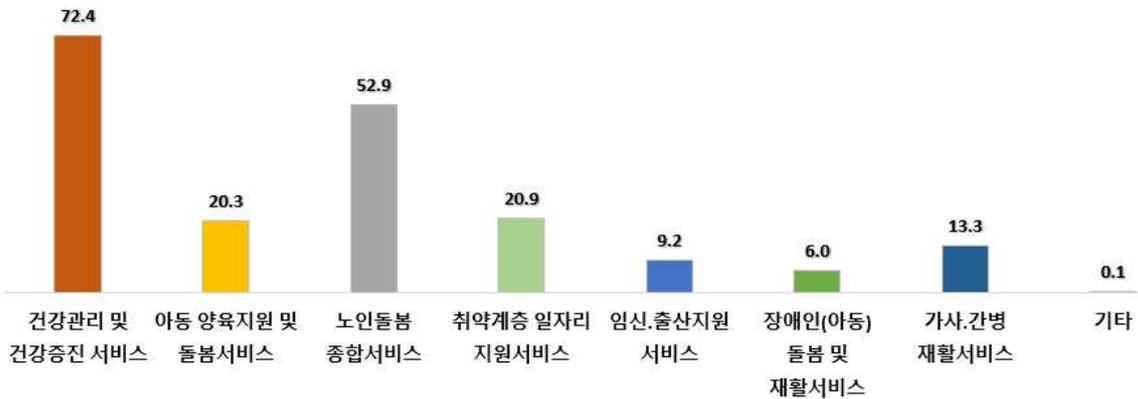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9-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늘려야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72.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2.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20.9%,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20.3% 순으로 응답함.
- 지역별, 성별, 지역별 등 모든 분류에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응답함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75.2%)과 중졸 이하(62.6%), 사별/이혼(70.7%), 가구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표 9-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구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임신·출산지원 서비스	장애인(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	가사·간병 재활서비스	기타
2017년	63.2	18.4	50.6	23.6	9.9	8.3	17.0	0.3
2019년	72.4	20.3	52.9	20.9	9.2	6.0	13.3	0.1
< 지역별 >								
중부권	69.9	17.4	59.8	18.6	12.3	5.1	11.8	
북부권	65.5	19.4	44.5	26.2	12.2	5.3	21.9	
서남부권	79.2	23.8	51.2	19.9	4.1	7.3	9.3	0.2
< 성별 >								
남자	70.8	23.6	49.5	23.9	8.4	6.3	12.5	
여자	74.2	16.5	56.8	17.4	10.1	5.7	14.2	0.1
< 연령별 >								
15~29세	71.8	42.8	30.8	30.4	12.2	2.5	4.5	
30~39세	49.4	48.8	25.1	33.4	20.1	7.8	10.4	
40~49세	62.7	32.0	43.3	19.4	13.0	6.2	18.5	
50~59세	75.6	14.2	44.3	29.5	8.3	8.2	14.7	0.3
60세 이상	77.7	8.9	69.7	13.1	5.9	5.6	14.2	
65세 이상	78.0	6.2	75.2	10.5	5.8	4.8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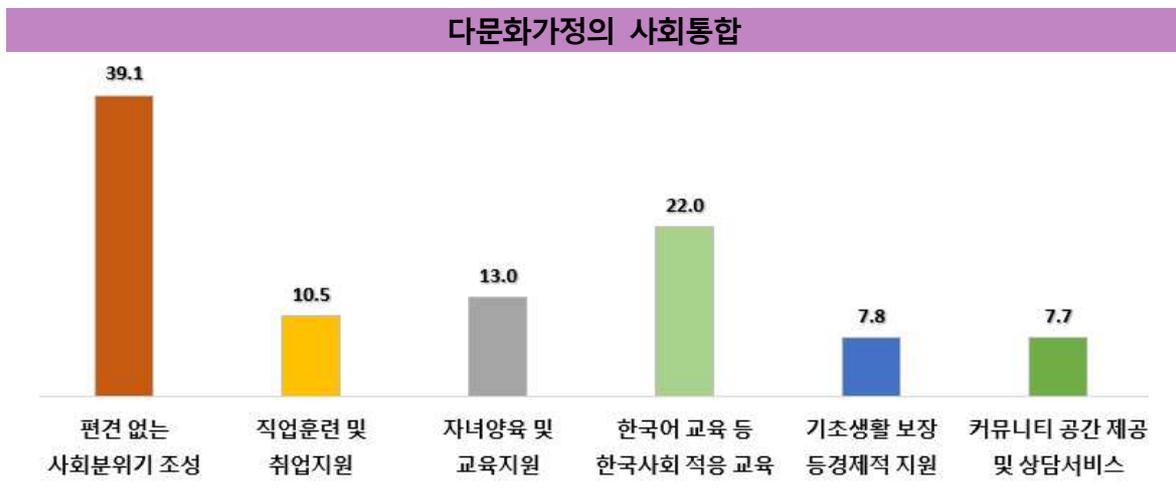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9-7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39.1%,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22.0%, 「자녀 양육 및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13.0%,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0.5% 순으로 나타남.

-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비교적 응답이 집중되어 있으며, 2017년 조사결과(39.2%)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고,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응답은 2017년 조사결과(19.5%) 대비 증가함.



[표 9-기]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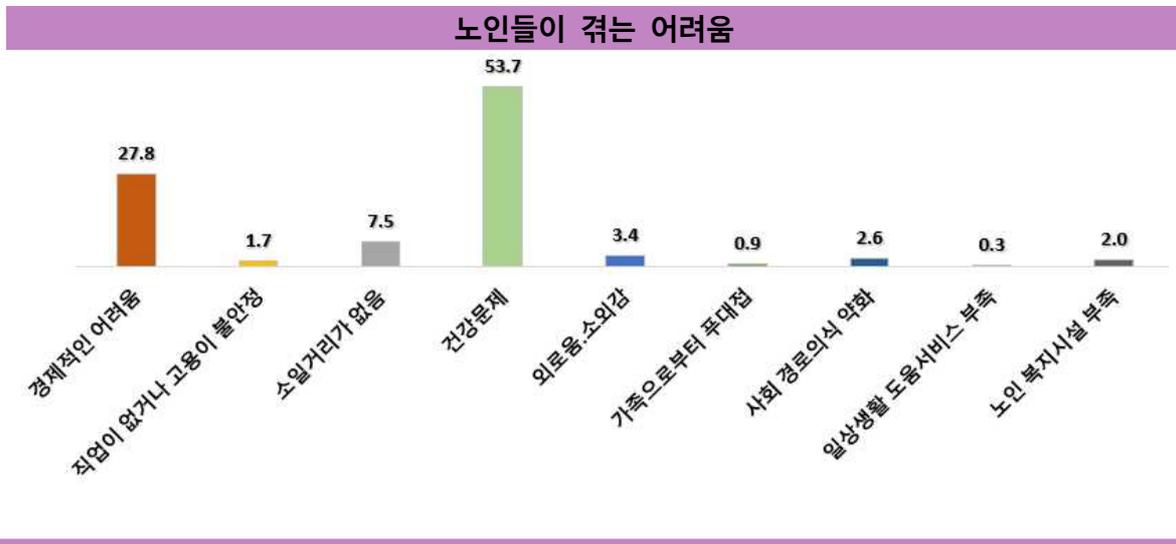
구 분	계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기초생활 보장 등경제적 지원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상담서비스	기타
2017년	100.0	39.2	15.1	12.0	19.5	13.8	-	0.5
2019년	100.0	39.1	10.5	13.0	22.0	7.8	7.7	
< 지역별 >								
중부권	100.0	39.4	11.1	9.9	23.5	10.7	5.4	
북부권	100.0	35.6	11.4	14.8	24.9	8.2	5.2	
서남부권	100.0	40.8	9.2	14.9	18.8	4.8	11.5	
< 성별 >								
남자	100.0	39.5	13.0	11.7	19.7	8.6	7.5	
여자	100.0	38.5	7.6	14.4	24.6	6.9	7.9	
< 연령별 >								
15~29세	100.0	22.2	8.6	17.5	16.9	16.7	17.9	
30~39세	100.0	40.5	4.7	14.3	25.7	4.7	10.1	
40~49세	100.0	36.4	7.3	20.9	19.3	5.5	10.6	
50~59세	100.0	42.9	14.6	8.9	20.6	5.9	7.1	
60세 이상	100.0	42.2	11.0	11.2	24.0	7.5	4.1	
65세 이상	100.0	42.1	9.6	10.1	26.7	8.1	3.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9-8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 이상, 주된응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53.7%)와 「경제적인 어려움」(27.8%)으로 조사됨.
- 「건강문제」는 2017년 8.3%에서 2019년 53.7%로 급증함. 「경제적인 어려움」은 2017년(36.3%) 대비 2019년 27.8%로 감소하였고, 「외로움·소외감」 또한 2017년(37.7%)에서 2019년 3.4%로 크게 감소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문제」는 중부권(59.6%), 서남부권(59.2%), 북부권(36.0%)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북부권(35.5%), 중부권(28.1%), 서남부권(22.5%)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모두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어려운 경향이 나타남.



[표 9-8]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 이상, 주된응답)

(단위: %)

구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2017년	100.0	36.3	1.3	3.3	8.3	37.7	8.1	0.4	2.3	0.6
2019년	100.0	27.8	1.7	7.5	53.7	3.4	0.9	2.6	0.3	2.0
< 지역별 >										
중부권	100.0	28.1	0.4	1.9	59.6	3.8	2.1	2.1	0.4	1.7
북부권	100.0	35.5	4.1	15.0	36.0	5.7	0.5	2.1		1.0
서남부권	100.0	22.5	1.5	8.5	59.2	1.6		3.5	0.4	2.8
< 성별 >										
남자	100.0	24.6	3.2	8.1	53.0	4.0	1.0	3.2	0.0	2.9
여자	100.0	30.0	0.6	7.1	54.2	3.0	0.9	2.2	0.5	1.3
< 연령별 >										
65세 이상	100.0	27.8	1.7	7.5	53.7	3.4	0.9	2.6	0.3	2.0